

4. 넷째 노래 (5:2-6:3)

<여인> 5:2-8

개역	사역
<p>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구나</p> <p>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 는</p> <p>4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p> <p>5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들 는구나</p> <p>6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p> <p>7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p> <p>8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p>	<p>2 나는 잠들었으나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네.¹⁾ 보라,²⁾ 내 연인이 문을 두드리네. “나에게 문을 열어 주오. 나의 누이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비둘기와 나의 온전한 자여!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채는 밤 이슬로 흠뻑 젖었다오.”</p> <p>3 내 겹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을까? 내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까?</p> <p>4 내 연인이 문틈으로³⁾ 그 손을 들이밀 때에 그이 때문에 나의 폐부가⁴⁾ 요동하였네.</p> <p>5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 주려고 일어났네. 몰약이 떨어지는 손으로 액체 몰약이⁵⁾ 떨어지는 손가락으로 문빗장 손잡이를 잡았네.⁶⁾</p> <p>6 나의 연인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었네. 그런데 나의 연인은 벌써 돌아서서 가 버렸다 네.⁷⁾ 그가 떠나버려서⁸⁾ 나의 님이 나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지만 만나지 못하였고 그이를 불러 보았지만 그의 대답이 없다네.</p> <p>7 성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만나자⁹⁾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네. 내 웃옷을¹⁰⁾ 벗겨 갔다네, 성벽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p> <p>8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너희로 맹세하게 하니, 나의 연인을 너희가 만나거든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랑으로 기진하였다고¹¹⁾ 전하여 주세 요</p>

1)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뒷부분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 첫째, 잠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실제로 깨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나의 마음’을 ‘나의 전체’라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의미, 곧 꿈을 꾸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가 문맥에서 더

5:2-8은 3:1-5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다. 3장에서는 여인이 침상에 누웠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이야기이고, 5장에서는 남자가 먼저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뒤늦게 남자를 찾아나서는 이야기이다.

5:2-8은 4:1-5:1과도 연결이 된다. 여러 주석가들은 4:1-5:1에서 혼인의 관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5:2-8은 혼인 이후의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한다.¹²⁾ 그렇지만 4장에 ‘나의 누이, 신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부부의 내밀한 관계를 표시하는 말도 나오지만, 시적인 표현을 곧 사실에 대한 묘사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4장을 혼인식으로 규정하면 그 다음 부분의 갈등을 읽는 데에 어려움이 생긴다.

여인이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다는¹³⁾ 말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하다. 첫째는 선잠을 자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움직인 것, 곧 3-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는 것이다. 침상에서 악몽을 꾸었다

자연스럽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것을 취하고 있다.

- 2) ‘쿨’을 다음 단어 ‘도디’와 붙여서 ‘내 연인의 소리’로 옮길 수도 있으나 ‘쿨’이 ‘들으라’는 감탄사로 옮기는 것이 좋다. NIV, NET, TNK 등에서는 “listen!”으로 옮겼다. 여기에서도 2:8처럼 ‘보라’로 옮겼다. 2:8-11과 5:2-7이 같은 ‘쿨’(보라)이라는 같은 단어로 시작하지만 여인의 반응에서는 대조가 된다. 2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던 여인이 5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 3) ‘민 하호르’는 ‘문에서부터’이다. 문맥에서는 밖에서 문을 통하여 손을 안에 넣은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은 ‘손을 문에서부터 떼었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TNK가 이러한 관점을 취하여서 “My beloved took his hand off the latch”로 번역하였다. 여인이 사랑하는 임이 떠난 것은 5:6에서 분명히 표시되었기 때문에 4절도 떠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 4) 폐부로 번역한 ‘메에’는 ‘내장, 배’를 가리키는데 사람의 감정의 좌소를 가리킨다. 5:14에서는 단순히 ‘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5) ‘모르 오베르’는 ‘호르는 몰약’인데 ‘액체 몰약’으로 옮겼다. 5:13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역하였다.
- 6) “내 손은 몰약을 떨어뜨리고, 내 손가락은 액체 몰약을 문밧장 손잡이에 떨어뜨렸네” 라고 옮길 수 있다.
- 7) ‘돌아서서 갔다’(하마크 아바르)는 두 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경우인데, 보통은 앞에 나오는 동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되고 두 번째 동사가 완전한 의미에서 동사적인 기능을 한다. 이 경우에 사용된 두 완료형은 다른 행동 이전의 행위를 묘사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NIV, ESV, NLT, TNK 등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과거 완료형으로 번역하였다. 시제를 분명히 살리려고 ‘벌써’를 첨가하였다.
- 8) ‘버다버로’를 ‘그가 말하였을 때’로 옮길 수 있고, 70인역 이후로 대부분의 번역본이 이 번역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5:2 이후로는 남성이 말하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맥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다바르’가 ‘떠나다’는 뜻이 있고, NIV, NEB, JB 등이 이 번역을 택하고 있다. ‘떠났다’고 보면 앞절과 평행구를 이룬다.
- 9)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찾았으나 ‘만나지’(발견하지, 마차) 못하였는데 야경꾼들이 여인을 ‘만나고’(발견하고, 마차) 폭행을 행하였다. ‘마차’라는 단어로 word play를 하고 있다.
- 10) 웃웃으로 번역한 ‘르디드’는 망토처럼 매우 간단한 옷이다. 여인이 문을 열어 주려고 나왔다가 그냥 사랑하는 임을 찾아 나선 것을 표시한다.
- 11) “사랑으로 병이 났다”는 말은 ‘사랑의 병든 여인’이라는 연계형이다. ‘원인의 연계형’으로 보아서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해석하였다. 참조, 2:5.
- 12)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232-235; 더글러스 손 오도넬, 『아가: 친밀함으로의 초대』, 129-121.
- 13) ‘깨었다’는 말은 2:7과 3:5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말라’고 할 때에 사용된 말이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이미 일깨워진 셈이다. Exum, *Song of Songs*, 193.

고 추정할 수 있지만, 2-7절의 내용을 꿈으로 이야기하면 8-16절의 고백도 꿈 속에서 한 것이 되어 이 시가 갖는 독특성이 사라지고 만다.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말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꿈으로 확정하고 어떤 ‘사실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노래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여인은 그 남자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잠시 망설였고 그러다가 그를 놓치고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였다.

여인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 아직 깨어 있던 여인은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자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자”라고 이전보다 더 자세히 부른다. ‘나의 온전한 자’라는 말은 “그대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구려”(4:7) 하는 고백을 상기시킨다.

남자는 머리가 이슬과 밤이슬로 젖었다고 한다.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것이므로 남자는 새벽에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다. 머리가 이슬로 젖었으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여인을 원하여서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다시 입기가 싫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까 다시 더럽히기 싫다고 말하였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남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다.

그러자 남자가 문틈에 손을 넣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스라엘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멍에 손을 넣고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것을 보고 여자의 마음이 움직여서 몰약으로 단장하고 문을 조용히 열어 주었다. 몰약으로 단장하고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은 남자의 청을 받아 들이기로 한 것이다.¹⁴⁾ 액체 몰약이 흐르는 손으로 문빋장을 잡았는데, 문빋장은 ‘잠근 동산’의 ‘잠근’과 같은 단어이다.¹⁵⁾

남자는 잠근 동산에 들어오려고 하였지만 여인이 늦게 반응하였고, 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떠난 다음이었다. 그러자 여인은 정신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죽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죽을 것과 같은

14) 5:2-7의 이야기에서 성적인 암시가 있으나 직접적이지는 않다. 여기에서 손과 발은 성기에 대한 완곡한 어법이기도 하다(사 57:8-10; 삼하 11:8). 또한 집과 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내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여인은 마음이 움직이면서 머뭇거렸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오해가 있고, 그리하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다. Exum, *Song of Songs*, 192.

15) R. Hess, *Song of Songs*, 174.

심정에 들어갔다. 여인은 정신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섰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 공기를 가르고 여기저기로 다녔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서게 하였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신 순찰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발견하였다. 3장에서도 그 여인을 발견하고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묵묵부답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여인을 때리고 베일(옷)을¹⁶⁾ 벗겼다. 이것은 성폭력도 포함하는 말이다. 성의 치안을 유지하여야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¹⁷⁾

3장에서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여기 5장에서는 자기 남자를 만나지 못한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의 연인을 만나면 자기의 사랑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너희로 맹세하게 하니,

나의 연인을 너희가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기진하였다고 전하여 주세요.

8절은 2:7이나 3:5과 마찬가지로 맹세의 형식을 취한다.¹⁸⁾ 사랑하는 남자를 불러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만 당했던 이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 달라고 하였다. 여인은 잠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성과 폭력

아가서에서는 성(性)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성과 폭력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도 성을 지켜야 할 순찰대가 집단으로 강간을 한 사실을 이야기한

16) ‘겔옷’ 혹은 ‘베일’로 번역한 이 말은 아주 간단히 걸치는 옷이다.

17) 어떤 사람들은 순찰자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이 여인을 창녀로 알고서 거칠게 다루었다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을 순화시켜서 이해하려는 것이고 폭력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해석이다.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 개론』, 590.

18) 김구원은 맹세의 공식에서 ‘임’ 이후에 부정어가 없으면 긍정으로, 부정어가 없으면 긍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 어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을 제안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기진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을 취하는 역본은 없고, 김구원도 자기의 사역에서는 사랑으로 병이 난 사실을 전해 달라고 번역하였다.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244.

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실체이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다. 그 여인이 당한 어려움을 알고서 그것을 싸매주는 사랑이 그 여인에게 필요하다.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한 문제도 교회에서는 피하지 않고 다루었다.¹⁹⁾

아가서에서는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의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다룬다. 꿈인지 현실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때리고 웃웃을 베풀었다는 말로 표현한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묘사는 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 여인의 상처가 덮여진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오늘날도 왜곡된 사회에 사는 우리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여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순찰하는 사람을 증원하고 그들의 인성을 테스트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참된 사랑이다. 어떤 여인이 그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들어서 여인의 위에 군림하려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또 다른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아가서는 이러한 시대에서도 어떻게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살 것인지를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합창> 5:9

개역	사역
9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9 너의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기에,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여. 너의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로 맹세하게 하느냐?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 여인들은 두 번 반복해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를 질문한다.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라는 말은 사

19)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은 그의 대저 『신국론』에서 그 문제도 다룬다. 410년에 로마시가 서고트 족에 의해 유린당하고, 로마에 살던 여인들도 겁간을 당하였다. 그때 그것을 피하려고 티베르 강에 자살하는 여인도 있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서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하였다. 그는 자살한 사람을 미덕의 소유자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심리와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다. 건강한 젊은 남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관계를 가질 때 육체는 빼앗기지 않지만 마음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묻는다. 다른 남자이지만, 힘 있는 젊은 남자가 주는 쾌락에 마음이 넘어가면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였다.

랑하는 남자가 여인에게 사용한 말인데(1:8) 그말을 폭행을 당한 여인에게 인용한다. 이것은 약간 조롱하는 말이고, “너의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기에” 하는 말에도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다.²⁰⁾

이 질문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잠시 망설였던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그에 관하여 말한다.

<여인> 5:10-16

개역	사역
10 나의 사랑하는 자는 회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10 나의 연인은 눈부시게 회고 혈색도 좋아서 만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²¹⁾
11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11 그의 머리는 최상의 정금이고 ²²⁾ 그의 머리채는 곱슬거리고 ²³⁾ 까마귀처럼 검다.
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12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 있다. ²⁴⁾
13 뺨은 향기로운 꽃발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진다	13 그의 뺨은 향품 나무 꽃발과 같아서 향기로운 풀이 탐을 ²⁵⁾ 이루고, 그의 입술은 액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화 이다.
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4 그의 팔은 황금 방망이, ²⁶⁾ 황옥으로 장식되었고, 그의 복근은 상아 널판, ²⁷⁾ 청옥으로 새겨져 있다.
15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5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빼어나다.
16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16 그의 입속은 매우 달콤하니 ²⁸⁾ 그의 모든 것이 탐스럽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의 연인은 그런 사람이고 나의 벗은 그런 사람이다.

20) H. Ohmann, 해당 구절.

21) “뛰어난 사람”으로 번역한 ‘다굴’은 ‘깃발’을 뜻하는 ‘테깰’에서 유래하였다. 멀리에서도 깃발을 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솟아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22) ‘케템 파즈’는 ‘정금의 금’이라는 뜻이다. 형용사적 연계형으로 보아서 ‘파즈’(정금)이 금(케템)을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최상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최상의 정금’으로 옮겼다.

23) 혹은 ‘대추야자와 같고.’

24) ‘밀레트’는 (1) 웅덩이, (2) (보석이나 눈이) 잘 박힌 (3) (이가) 견고한 등의 의미가 있다. 우유로 목욕하고 잘 박혔다는 말이 건강한 치아를 묘사하는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Murphy, Longman III). 그렇게 하려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을 받고 여인은 자신이 잠시 받아들이기를 망설였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여인의 몸에 대한 남자의 찬사에 대한 여인의 응답처럼 보인다.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두 사람이 좋은 짝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 여자에게는 그 남자의 모든 것이 특별한 것처럼 보인다. 희고도 붉은 피부는 생기발랄함과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갈색인 얼굴도 정금처럼 기품이 있게 보인다.

그의 머리는 정금과 같고 머리카락은 검다고 하였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의 머리 부분이 정금이었던 것처럼(단 2:32, 38), 이 남자의 머리도 정금과 같고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른다. 황금색과 검은색으로 대비를 시키는데, 이것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색조의 조합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단정할 뿐 아니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멋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다. 남자는 베일에 가려진 여인의 눈을 비둘기로 비유를 하였는데(4:1) 여자는 남자의 눈을 시냇가에서 씻은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한다.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맑고 투명한 눈은 내면의 맑은 것을 표시하는 눈이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맑은 눈이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이 묘사는 객관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인은 남자의 수염(髭에 있는 꽃밭과 풀 언덕)을 묘사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나누었던 입맞춤을 회상하면서 그의 입술은 백합화나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한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백합화로 비유하였는데(2:2), 5:13에서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백합화로 비유하고, 그의 입술에는 몰약이 떨어진다고 한다. 입맞춤의 달콤함을 이러한 말로 표현한다.

그의 손은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고 다리는 정금 받침대에 세운 대리석 기둥과 같다고 말한다. 마치 대(臺) 위에 동상을 세운 것을 묘사하는 것과 같

면 ‘치야’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눈이 건강하고 제 자리에 잘 박힌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25) 풀이 탐을 이룬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탐들(미그델로트)의 모습을 다르게 찍어서 ‘가달’(자라게 하다)의 피엘 분사로 읽으면 ‘자라게 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NIV가 그렇게 옮겼다. 다른 번역은 ‘탐이나 망대’라는 말 대신에 ‘두둔’(bank, mound)로 옮겼다(ESV, NJB).

26) ‘걸리레이 자하브’는 황금 원통(cylinder)라는 뜻이다.

27) ‘복근’으로 번역한 ‘메에’가 5:4에서는 감정의 좌소를 뜻하는 ‘폐부’로 번역하였다. ‘배’로 옮길 수 있는데 상아를 층층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복근’(腹筋)으로 옮겼다.

28) ‘그의 입술’은 단수이지만 형용사 ‘맘타킵’은 복수이다. 강조의 복수로 이해하여 ‘매우 달콤하다’로 옮겼다.

다. 귀금속으로 장식한 상으로 표현하며 남자를 매우 가치 있고 아름답고 강력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남자의 다리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였는데 이것은 레바논에서 내려온 여인과 좋은 짝이 됨을 암시한다(48, 15).

남자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도 입이 달다는 것으로 끝난다. 입이 달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한 그와의 입맞춤도 그렇게 달콤하다는 뜻이다. 여인은 머리에 서부터 시작하여 다리까지 묘사하고, 끝으로 그의 입술을 빌어서 그 사람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사직 찍듯 객관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입맞춤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그렇게 마무리된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묘사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마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यो 이는 나의 친구라**”는 말로 마친다. ‘나의 연인은 그런 사람이고 나의 벗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한 것은 예루살렘 여인이 ‘너의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두 번 말한 것에 대한 답으로 한 것이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다.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 없는 긴밀한 사이임을 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²⁹⁾

여인이 당한 폭행이 이 고백의 배경이 되는데,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힘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여인은 남자의 손과 다리를 단단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서 그가 자기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능력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자기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서 자기를 그러한 어려움에서부터 보호해 줄 자임도 말하고 있다.³⁰⁾

<합창> 6:1

개역	사역
1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1 네 연인이 어디로 갔는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여. 네 연인이 어디로 향하였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으리라. ³¹⁾

여인들은 그 여자를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부른다(1:8; 5:9). 이들은 폭행을

29) R. Hess, *Song of Songs*, 188.

30) R. Hess, *Song of Songs*, 188, 191.

31) 앞의 두 질문에는 대답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바브 + 미완료’는 목적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ET는 “Tell us”를 첨가하여서 “Tell us, that we may seek him with you”로 번역하였다.

당한 여인을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관하여 말해 보라고 하였고(5:9),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똑같은 말로 여인을 부르면서 그 여인과 함께 그 남자를 찾겠다고 약속한다. 그 약속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다음 절에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말은 이야기의 전개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인들의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알게 되었다.³²⁾

<여인> 6:2-3

개역	사역
2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 떼를 먹이는구나	2 나의 연인이 자기 동산으로, 향품 나무 꽃밭으로 내려갔답니다. 동산에서 ³³⁾ 풀을 뜯고 백합화를 모으려고 한답니다. 3 나는 나의 연인의 것, 나의 연인은 나의 것. 그이가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연인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왔다고 이야기한다. 동산, 향품 나무 꽃밭, 백합화는 모두 여인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인의 연인이 ‘자기 동산’으로 왔다는 것은 여인에게 왔다는 말이고(참조. 4:16-5:1), 향품 나무 꽃밭이나 백합화를 모으는 것은 모두 두 사람의 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다른 여인은 모두 가시나무와 같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백합화와 같다’(2:2)고 말한 남자가 자기의 여인에게서 만족과 즐거움을 취한다. ‘동산에서 풀을 뜯거나’ ‘백합화 사이에서 풀을 뜯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넉넉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던 여인이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음을 고백하면서 그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참조. 고전 7:1-5).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말로 보충된다. 2:16에서처럼 여기에서도

32)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판단하려는 것은 아가서를 노래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될 것이다.

33) ‘동산들’과 ‘백합화들’이 복수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복수를 근거로 하여서 많은 여인들, 혹은 궁중의 많은 비빈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첫째는 시에서 복수는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이고 또한 다음 절에서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충분한 즐거움을 취하고 여자도 남자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2:16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여자에게 속했음이 먼저 나오는데 6:3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작은 변화를 가져온다.

갈등과 폭력과 사랑

남자는 새벽 공기를 가르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갔지만 반응이 없자 뒤돌아서 갔다. 여인은 남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망설이면서 쉽게 응답하지 않았다. 뒤늦게 응답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 이후였다. 어떤 이유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으나 사랑하는 사람이 장밋빛 동산만을 거니는 것은 아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갈등의 현실도 간결하게 묘사한다.

갈등 후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여인은 남자가 떠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집을 나섰다. 위험을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웃웃의 벗김을 당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 어려움을 묘사한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서로 온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혼인한 다음에도 그렇다. 작은 것이 큰 오해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만회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이다. 아가서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사랑을 낭만적으로만 그리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나 때로는 폭력도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아가서는 의사소통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서 사랑을 제시한다. 폭력의 문제는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남자는 그 여인이 순찰하는 사람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어 주는 것이며(잠 10:12), 상대의 허물을 거둬 말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잠 17:9). 오해와 폭력의 세상에서 아가서는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고전 13:4-7).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요일 4:18).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어두운 경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